

# 널 보면 동생이 더 그리워



한국아동문학상 수상 이성자 시인 동시집 '피었다, 활짝 피었다' 펴내

꽃이 된 동생이 준 책 덕분에 들꽃에 빠져 살아  
이야기로 풀어 쓴 50여종...식물정보도 가득  
행여 활짝까 조심조심 걷는 마음으로 썼어요



나태주 시인은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고. 꽃은 조그맣고 소박한 나머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진면목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인적이 드문 길가나 한적한 들녘에 핀 꽃은 나

폴꽃' 등의 책을 선물 받으셨다.

"길을 가다가도, 산을 오르다가도 폴꽃이 보이면 쪼그려 앉아 고운 얼굴을 들여다보고, 소곤소곤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런 사고로 동생이 그만 '폴꽃세상'으로 떠나고 만다. 새로운 꽃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 보내줄 만큼 각별했던 아우가 한송이 '폴꽃'이 되고 난 후, 시인은 폴꽃에 빠져 살았다.

이 시인은 "폴꽃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동시로 써서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며 "눈에 띄는 폴꽃들이 행여 활짝이라도 활짝 봐 한쪽으로 조심조심 걷는 마음으로 썼다"고 덧붙였다.

작품집에 수록된 많은 시들은 동생에게서 얻은 모티브의 산물이다. 수수하고 꾸밈이 없는 폴꽃의 모습에는 동생의 이미지도 투영돼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폴꽃에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오랜 벗의 이미지도 형상화돼 있다.

"비 오는 날엔/ 내 이름을 불러 주세요./ 언제라도/ 우산이 되어 줄게요.// 비 맞고 놀던/ 지렁이까지 기웃 기웃."('우산나물' 중에서)

이처럼 시인은 각각의 폴꽃을 다정한 친구를 소개하듯 독자들에게 전한다. 폴꽃을 사람과 사물, 동식물에 빗댄 이미지와 의미는 무한대로 확장된다. 시인은 단순히 꽃을 소개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폴꽃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준다. 작품 말미에 꽃의 이름과 모양, 색깔, 꽃 피는 시기 등이 꼼꼼하게 기록돼 있다. 일례로 '우산나물'은 이파리가 우산 모양인 여러해살이풀로 7~8월에 연분홍색 꽃이 원뿔 모양으로 피어나는 꽃을 일컫는다.

시를 읽다 보면 한편의 재미난 이야기를 읽는 느낌을



'우산나물'

받기도 한다. 낙지 다리를 닮은 '낙지다리', 주근깨 많은 아이를 닮은 '하늘말나리', 수염을 기른 광대를 닮은 '광대수염' 등 이색적인 폴꽃들이 전하는 속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각각의 시에는 일러스트레이터 신승기씨가 그린 그림도 첨부돼 있어 보는 즐거움도 쏠쏠하다.

추천사를 쓴 아동문학가인 이준관 전 한국동시문학회장은 "소리 내어 읽으면 가슴이 폴꽃 향기로 가득해지는 것만 같다"며 "이 동시들을 읽고 나면 길에서 흔히 보던 폴꽃에 대한 궁금증이 시원하게 풀리고 어느새 폴꽃과 다정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평한다.

한편 이 시인은 명지대 문예창작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9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방정환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작품집으로 '너도 알 거야', '입 안이 근질근질', '뽕귀 날다' 등을 펴냈다. 현재 광주교대와 동 대학원원 동시와 동화를 강의하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독거노인 집에 또 누가 산다고?

DIC 코믹 호러 '실례합니다 3' 25일까지 광주 공연 일변지

연극문화공동체 DIC의 코믹 호러 연극 '실례합니다 3'이 관객들을 만난다. 23~25일 광주 소극장 공연 일변지.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스산한 어느날 오후. 허름한 아파트 4층에 사는 노인인 조용히 자신의 일인 마네킹 화장을 하고 있다. 위층 층간 소음을 참지 못하는 노인은 비웃고 삼을 쟁겨 자리를 비우고 그 때 아파트 도둑이 집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는 노인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살고 있는 흔적이 보이는데... 그들은 왜 노인의 집으로 오게 된 걸까? 살인 사건과 재건축 등의 문제가 얽히면서 흥미롭게 전개된다.

정문희씨가 희곡을 쓰고 연출을 맡았으며 임홍석, 문진희, 이현숙, 송민중씨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2-514-7007. /김미은기자 mekim@

## 창립 50년 '예쁘고 정신' 조명

광주예술인회 계간지 '소나무' 여름호

(사)광주예술인회가 발행하는 계간지 '소나무' 2016 여름호(통권 제15호)가 나왔다.

이번호 특집은 강봉규 사진작가의 서울시립미술관 초대전 소식을 전한다. 또 남도의 아방가르드 현대미술을 이끈 예쁘고 50년을 조명했다. 인터뷰를 통해 우제길 화백에게 '예쁘고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문화마을을 찾아서'는 전고필 대인예술시장 별장 프로젝트 총감독이 '대인시장을 살린 문화예술의 힘'을 주제로 대인예술시장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짚어본다. 향토사학자 김정호씨가 전하는 '잃어버린 광주의 문화유산'은 '광주 포로수용소'에 대해 다뤘다. '살아 숨쉬는 근대미술관'에서는 오병희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가 한국 추상회화의 개척자 수화 김현기에 대해 들려준다. /김용희기자 kimyh@

## 학업성취 향상 위한 글쓰기 교수법 워크숍

전남대 기초교육원 교양교육지원센터 24일

전남대 기초교육원 교양교육지원센터는 오는 24일(오후 4시) 진리관(701호 e강의실)에서 '글쓰기 교수법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기초교육원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업성취 향상을 위한 교수법 공유와 제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발표자는 임미진 강사(영어영문학과)와 이옥희 강사(호남학연구원)로, 각각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글쓰기 교수법 공유에 대해 사례 발표와 제안을 한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글쓰기' 연장선에 있는 신철 교양과목 '말하기'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박진영 강사(기초교육원)가 글쓰기와 말하기의 연관성 등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한다.

홍은실 기초교육원 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학업성취와 의사소통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호남시조시인협회 제46호 시조문에 상반기 연간집 발간

47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호남시조시인협회(회장 김철학)는 최근 제46호 시조문에 상반기 연간집을 발간했다.

연간집에는 조선휘 화백의 '지리산의 일몰'이 표지화로 실렸으며 고(故) 이영도 시조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 경북 청도 시조문학 기행이 수록됐다. 또한 오재열 교문

이 글씨를 쓴 이영도의 '진달래', 이호우의 '달밤' 시화, 제23회 시조문예상 수상자인 김창현 시조시인의 수상작품과 심사평이 실렸다.

이밖에 고(故) 엄광욱 교문 추모시조 글과 경북 청도 시조문학 기행시조 작품, 강대선 시조시인 등 회원들의

다수 작품도 수록돼 있다. 시조평론에는 박영학 원광대학교 신방과 명예교수(원로 시조시인)의 '현대시조의 외형은 하나여야'라는 주제의 글이 실렸다.

김철학 회장은 "이번호부터 상·하반기 나누어 협회지(연간집)를 내게 돼 회원 당 한 회에 6~7편까지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며 "회원들의 시조 창작과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참숯구이 민물장어와 숙지환 삼계탕을 개시합니다.
- 솔향기정식,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숙지환삼계탕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참숯가마 찜질방 / 족욕탕 / 참숯구이 민물장어 & 돼지갈비 전문점 / 노래방 & 동전노래방**